

쇠고기 수입 3만9천톤

농림수산부는 '88년도 축산시책방향을 △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공정거래 질서확립 △ 국내 사료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철저등에 역점을 두고 총 2026억5천4백만원의 사업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1)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89년도의 쇠고기 수급전망을 13만6천톤(1인당 3.4kg)을 비롯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15만 6천톤이 수급될 전망이며 우유는 185만8천톤(1인당 43.8kg)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안정을 위해 쇠고기를 3만9천톤(전체 수요량 : 13만6천톤)을 수입하며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을 400여개소(서울 320, 부산 80)를 육성할 예정이다.

쇠고기 가격안정대체를 조기에 정착시켜 사육기반을 안정시키며 안정적 소득을 보장한다.

중앙 및 시도에 소값안정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소값동량분석과 대책을 협의하여 1200억원의 양축자금 중 저리로 지원하여 양축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 유통출하자금 10억원을 확보하고 출하자담실 465개소를 설치하여 계통출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원유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학교우유급식을 적극추진하여 우유소비의 저변을 확대하고 집유일원화, 원유검사공정성확보, 원유가격체계등 낙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 원유의 품질향상을 위한 냉각기 보급 및 집유장 설치로 낙농경영의 개선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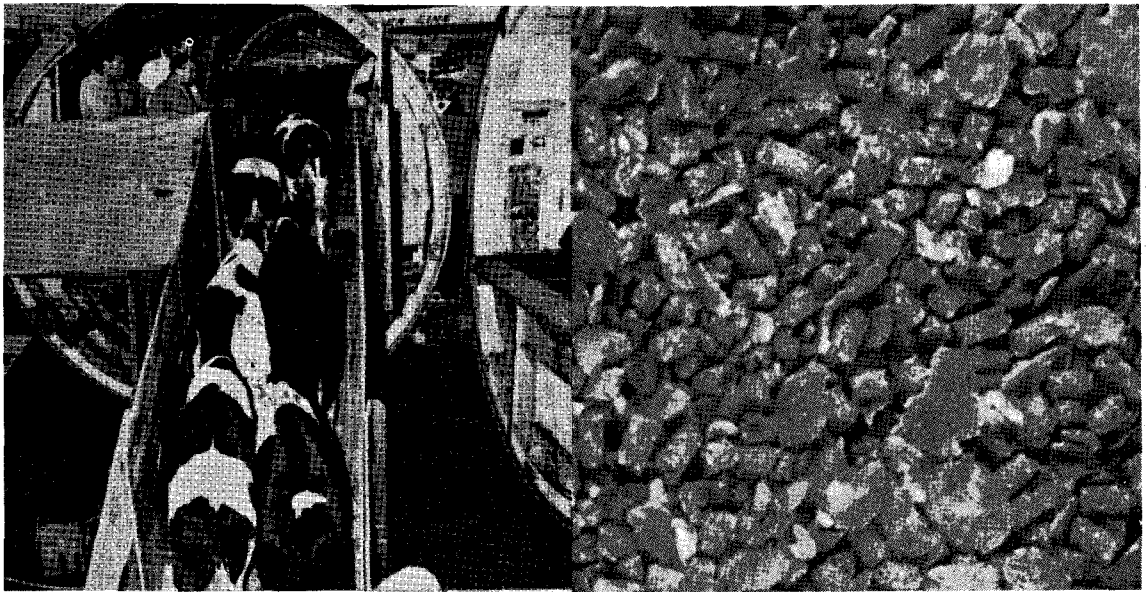
2) 가축개량 및 양축경영안정

가축개량사업을 위해 가축인공수정사업의 활성화와 능력검정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우에서는 당대 및 후대검정에 의한 보증종모우를 연간 20두 내외를 생산하여 이를 위해 산하단체와 연계추진하여 한우개량단지를 64개소로 확대하여 우량암소군을 확보할 예정이다.

젖소의 개량사업을 위해 고능력정액 및 수정란을 이용한 후보종모우를 생산하고 젖소개량단지를 활용한 후대검정 및 보증종모우를 생산하여 젖소개량단지를 88년의 7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양축경영의 안정을 위해 축산시책 및 축산동향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축사양 및 경영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축산관측의 내실화와 홍보로 농가 자율조절을 유도하고 축산물 생산비 조사발표로 양축가에게



경영지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3) 축산물 유통개선

축산물 도매기능 확충을 축협공판장 설치를 추진하며 우량정육생산 유도과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소, 돼지 도체등급제를 '89년 하반기이후 6대도시부터 실시하고 쇠고기 부위별차등가격제를 조기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육가공공장의 건설을 추진하여 부정축산물의 지속적 단속으로 정육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4) 국내사료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개량목초 증산이용과 벧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을 6만5천기로 확대하고 풀거래시장을 24개소(도당3개소)를 운영하여 국내 부존사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내산 원료의 이용과 조사료증산 사업확대로 국내사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할 계획이다.

5) 축산물 위생및 가축방역

축산물의 위생적인 공급을 위한 시설개선및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밀도살등 신고포상금 지급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가축방역및 동물검역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며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양축가 피해 방지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

해외 악성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수출입 검역을 강화하여 예방약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으로 가축질병 예방에 효과를기한다.

가축진료 업무 내실화를 위해 가축질병 진료·예찰업무를 강화하며 수의사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